

튼튼했고 과거의 回想 또한 흥미있는 것이었다. 항상 아침마다 萬步를 걸으신다고 하셨는데 人生에는 결국 끝이 있는 법인가. 多福하셨고 부지런하셨고 자상하셨던 先生은 學者의 淸貧하고 욕심없는 像의 본모습을 日常的인 몸짓에서 보여 주시면서 어느날 갑자기 道士처럼 저승으로 숨어버리셨다.

## 一山 金斗鍾博士와 韓國科學史學會

林 采 源

淑明女大 史學科

一山先生! 先生님에 대한 追悼의 글을 쓰자니 눈물이 앞을 가린다. 先生님으로부터 입은 恩惠를 이 한갓 追悼의 글로써 表現하기엔 너무나 벅찬 感懷에 젖게 된다. 이 感懷를 先生님에 대한 追憶과 더불어 색여 볼까 한다.

내가 先生님과 直接 關係를 갖게 된 것은 1958년 봄쯤으로 생각된다. 당시 나는 西洋史學을 研究하는 사람으로서 서울大 醫科大學 看護學科의 文化史講義를 맡고 있었는데 先生님을 뵈을 機會를 가졌다.

先生님께서서는 나에게 科學史關係 研究를 勸獎하시면서 歐美에서는 科學史學者들이 科學專攻 出身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一般歷史學 專攻者들로부터 나오고 있으니 한번 이 方面을 研究해 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研究할 意慾이 있으면 醫科大學內 醫史學教室의 研究室을 하나 주겠다는 것이었다.

先生님의 이러한 提案에 나는 無條件 同意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科學史關係 冊들도 빌려 주셨다. 이리하여 나는 醫史學教室의 敎室員 아닌 敎室員 같이 되었다. 당시 醫史學教室에는 지금은 停年退職하신 李英澤先生, 그리고 韓昇璉先生이 계셨다.

그때 넓은 研究室을 하나 차지하여 研究할 수 있는 空間을 가졌다는 것은 여간 幸運이 아니었다. 先生님 敎授室은 내 房 바로 앞 방이었기 때문에 朝夕으로 뵈는 機會를 가지게 되었다. 나는 先生님의 仁慈하신 性稟과 學問에 대한 그 넓은 涉獵에 큰 感銘을 받게 되고 先生님의 過去 經歷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게 되었다.

先生님께서서는 滿州에서 크게 成功하신 內科醫師로서 큰 財産을 모으셨으나 臨床醫를 그만 두시고 奉天 滿州醫科大學 東亞醫學研究所에 들어가서 東洋醫學 및 醫學史 研究의 길로 나아가시고 醫學史 研究로써 醫學博士學位를 받으셨다. 解放後에 國立서울大學校 醫科大學이 새 出發할 때 初代 大學病院 院長職을 맡은 일이 있었던 것도 처음 알게 되었다.

이렇게 先生님께서서는 臨床醫에서부터 醫史學 研究로 轉換하신 稀有의 存在이시다. 또 先生님께서서는 우리나라 古活字 및 板本の 大家이신데, 이것은 滿州醫大 在職時에 그 많은 古書들을 接하는 가운데서 自然스럽게 體得하셨다는 것이다.

『서당개 3년에 風月을 읊는다.』는 말과 같이 나도 先生님을 모시고 있는 가운데 들은 것 때문에 古活字, 板本에 대한 知識을 약간은 가질 수 있게 되었다. 西洋史學을 專攻하는 내가 科學史 關係 論文을 몇篇 쓰게 된 것도 이때 先生님 밑에서 工夫한 덕택이라고 생각된다.

先生님께서서는 늘 科學史를 우리나라에서 認識시키고 普及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學會를 만들어

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1960년 3월에 本格的으로 學會 創立을 推進하시면서 나에게 그 일을 맡으라고 하셨다.

學會 發足を 위한 準備作業으로서 先生님께서서는 元老級에서는 當時 文理大 數學科의 崔允植先生님, 高大 生物學科의 李德鳳先生님 등과 接觸하셨다. 그리고 金泰鳳, 李鍾珍, 權寧大, 朴益洙先生님 등이 積極적으로 呼應하셨고 가장 젊은 層에서는 나를 비롯하여 趙馨遠, 崔正奉 등이 움직였다.

드디어 學會 結成의 準備가 完了되어 1960년 7월 16일에 韓國科學史學會가 創立되기에 이르렀다. 創立總會에서 先生님은 初代會長으로 選出되시어 科學史學會를 이끌어 가게 되었고 나는 初代幹事로서 先生님을 補佐하게 되었다. 當時 會員은 約 70名 程度로 記憶이 된다.

科學史가 우리나라에서 별로 認識되지 못하던 時節에 先生님께서서는 여러가지 隘路를 무릎쓰고 先見之明을 가지시고 學會를 創立하였는데 오늘날 韓國科學史學會는 數百名の 會員을 가진 大學會로 發展하였다.

先生님은 會長 辭任後에는 名譽 會長으로서 繼續 學會의 諮問에 應하셨고 끝까지 韓國科學史學會의 發展을 지켜보셨다.

이제 地下에 계신 先生님께서서는 그렇게도 所望하시어 發足시킨 韓國科學史學會의 無窮한 發展과 더불어 永遠히 빛나실 것이다.

## 내가 모신 김두중회장

송 상 용  
한림대 사학과

무더운 7월 오후. 집에서 석간을 뒤적이다가 1단기사에 눈이 머문 순간 나는 아찔해짐을 느꼈다. 이럴 수가? 一山선생이 그렇게 빨리 가실 줄은 정말 몰랐다. 편찮으셨다는 얘기도 들은 일이 없는데—— 두달전 전국역사학대회에 만나오셨기에 어디 가신 줄만 알았던 게 불찰이었다. 2월에 귀국하자마자 가 뵈지 못한 것이 후회될 뿐이었다.

내가 一山 김두중선생을 처음 뵈은 것은 4·19 나던 해 서울대 의대에서 있던 한국과학사학회 창립총회에서였다. 그때 나는 다시 학생이 됐으니까 환갑을 넘긴 회장과 어울릴 처지는 아니었다.

2년 뒤 나는 간사에 추가 임명되었지만 학회는 이미 긴 동면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1969년 내가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초대간사 임채원교수는 이제 학회는 과학사 하는 사람이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서류를 넘겨 주셨다. 이렇게 해서 나는 김두중회장을 모시고 학회 재건이라는 어려운 일에 착수하게 되었다.

학회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70년대에 나는 힘든 줄 모르고 정신없이 뛰었다. 一山선생은 일을 전적으로 내맡기고 간섭하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일하기는 한껏 편했다. 그러나 나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회장께 보고하고 의논드리기를 잊지 않았다. 一山선생은 늘 격려해 주시고 최대한의 도움을 아끼지 않으셔서 큰 힘이 되었다.

1975년 미국에 머무시던 一山선생이 회장직 사의를 전해 오셨고 학회는 이를 받아들여 명예회장으로 모셨다. 그 뒤에도 선생은 발표회는 물론이고 임원회 등 각종 모임에 빠지시는 일이 없었다.